진심 어린 참회, 나를 정화하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⑥ 참회 대상과 방법

• **투도(偷盜 : 도둑질)** - 투도는 보통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고 해석되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불여취(不與取)라고 해서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도 투도에 해당한다.

◎불법(不法), 위법(違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교통신호 위반, 새치기 등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

◎업무상 지원되는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행위.

◎업무 시간 중 놀러 다니는 종업원처럼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빌린 돈이나 외상값을 갚지 않거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번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자기가 독점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

◎친목 도모나 레저의 차원을 넘어선 화투, 포커, 도박, 게임 등의 사행성(射倖性) 오락에 심취하는 행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자신이 갖는 행위.

◎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며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행위.

• **사음(邪婬: 삿된 음행)** - 사음이란 옳지 못한 성(性)행위로, 출가자는 일체의 성행위가 사음에 해당되며, 재가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음(姦婬)이라 하기도 한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관계로 볼 수 없는 파트너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의 성행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등이 사음에 해당된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은 사음이라 할 수 있다.

구업(口業) : 구업은 말을 해서 짓는 악업인데, 말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도 포함되며, 게시물이나 언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해당된다. 오계의 망어는 광의의 망어로서 〈천수경〉의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야 참회에서는 〈천수경〉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 **망어(妄語 : 거짓말)** - 망어는 거짓말이 대표적이며 그 외 쓸데없는 말도 포함된다. 거짓말이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등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믿고 이야기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하거나 과도한 수다 등은 쓸데없는 말에 해당된다.

• **기어(綺語 : 꾸밈말)** -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하며, 심하게 아첨하는 말도 기어라고 할 수 있다.

• **양설(兩舌 : 이간질)** -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서로에게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하여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각각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악구(惡口 : 욕설)** - 악구는 욕설, 음담패설, 남을 모함하는 험담, 시기·질투하는 말, 저주하는 말(악담) 등을 말한다.

이상이 광의의 망어에 해당하는 구업 네 가지인데, 종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말로 짓는 악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 신업은 악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구업 역시 과보를 초래하는 악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음주(飮酒 : 술 마심)** -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술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당되며, 마약이나 환각제의 복용 등도 해당된다.

책임 회피나 도박, 신업 중 투도에 해당
미성년자 및 배우자 외의 성행위는 사음

구업은 말·글·동영상 등으로 짓는 악업
거짓말, 꾸밈말, 이간질, 욕설 등 포함돼

부처님 앞서 참회 대상에 진실로 뉘우치고
절 한 번에 "참회합니다" 5~7회 반복해야

음주는 신업에 속한다고 봐야 하지만, 오계의 순서를 따르다 보니 구업 다음에 넣게 됐다.

지금까지 신업과 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보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나 악행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불교의 악업에는 사회적 범죄나 악행이 당연히 포함될 뿐 아니라 사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비윤리적이거나 비양심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참회 방법

이제부터 설명하는 참회 방법은 반야 참회의 모든 참회 대상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는 이 방법을 따르면 된다.

(1) 참회를 시작할 때 살아 계신 부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이제 앞에 계신 부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참회 대상에 해당하는 과거의 행위 한 가지를 기억하여 그 당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다음 "부처님,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라고 하면서 절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가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참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보충해서 설명한다.

첫째, 참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억에 되살려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생각하고 말면 안 된다. 또 생각을 했더라도 곧 잊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참회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회한다는 말은 반드시 "부처님, 참회합니다"라고만 반복해야 한다. 한 마디라도 빼거나 바꾸거나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 된다. 또 이 말은 적게라도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빨리 반복해도 좋지 않다. 절을 한 번 할 때 5~7회 정도가 적당하며, 익숙해지면 횟수를 줄여도 된다.

셋째,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가짐이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참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입문 단계에서는 자신이 지은 무거운 악업을 기억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악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음이 그대로 발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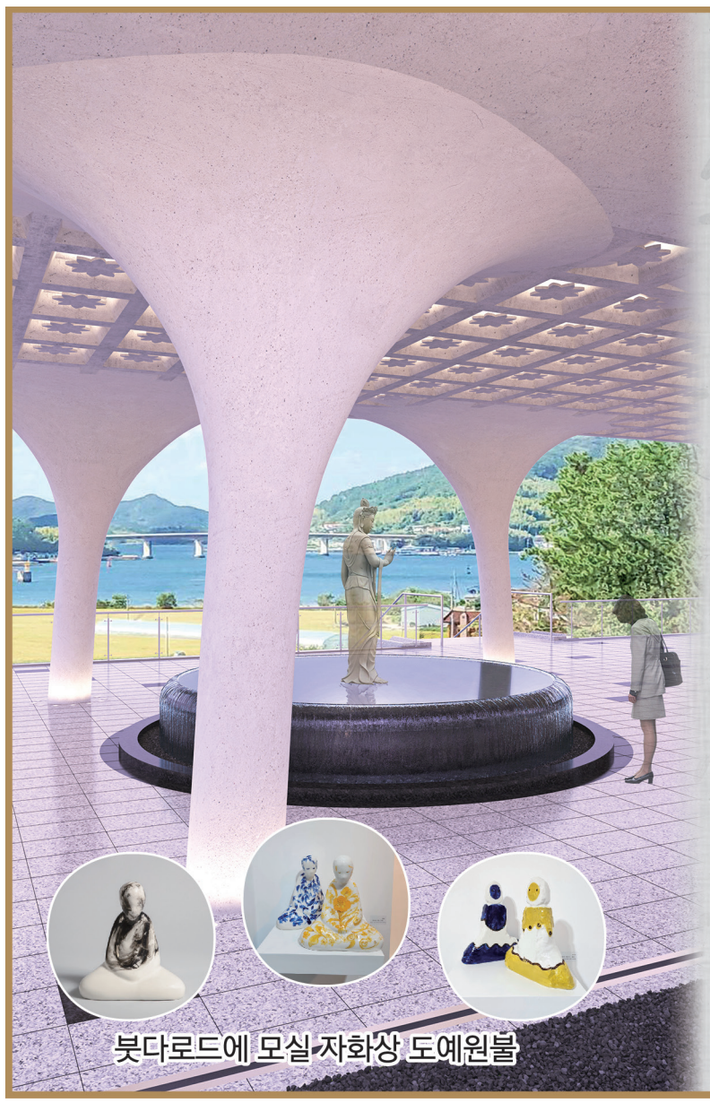
(2) 다음에 똑같은 악업을 또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도, 참회하는 그 순간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 어차피 또다시 악업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참회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건성으로 참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집 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오늘 방 청소를 해도 며칠 있으면 다시 먼지가 앉아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게을리하면 그 방은 영원히 깨끗해질 날이 오지 않는다. 더러워질 때 더러워지더라도 청소를 할 때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한다면 단지 며칠 동안이라도 방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음에 악업을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회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참회하면 그만큼 내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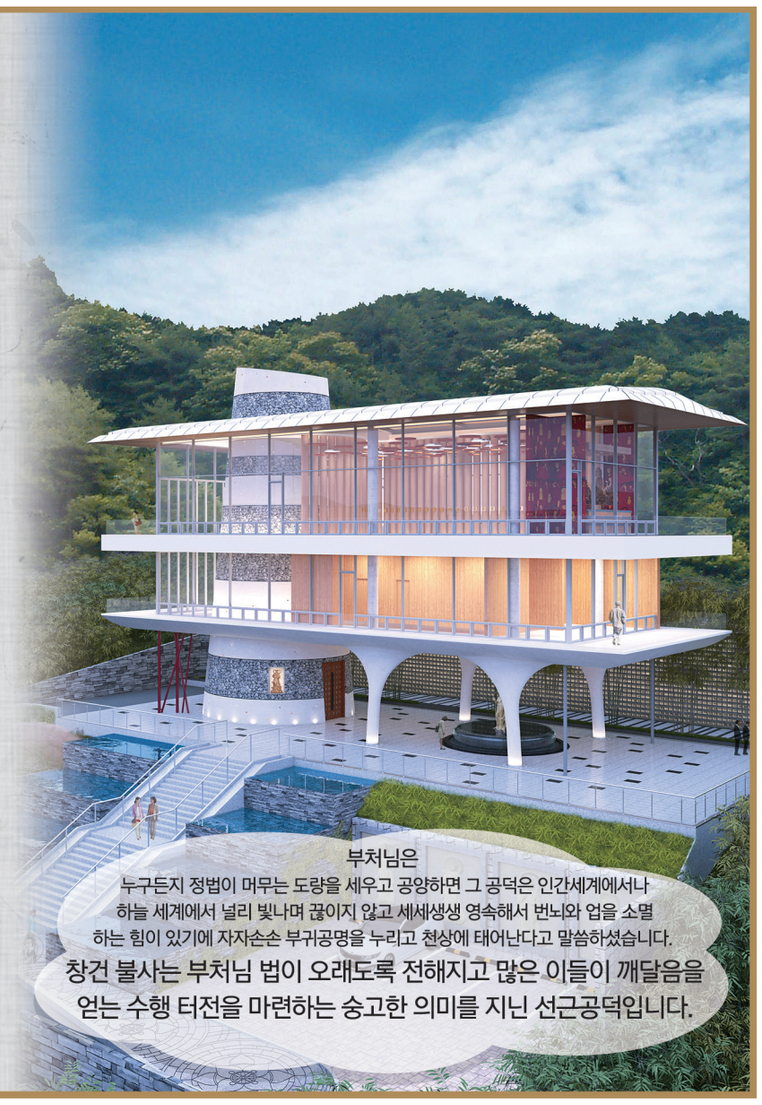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

붓다로드에 모실 자화상 도예원불